

“공부하지 말고 몸에 익혀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쓴 정찬용씨

낙양의 지가를 한껏 올린 정찬용씨의 책은 영어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구한다. 외국어는 공부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해야만 비로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영어 학습법을 제시한 정찬용씨를 만나봤다.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사회평론)는 ‘준비된’ 밀리언셀러다. 이 책의 판매부수는 현재 80만부로 추산된다. 몇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그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이 추세라면 백만부 돌파는 시간문제다. 또한, 책 관련 홈페이지(www.dr-english.co.kr)에서도 밀리언셀러의 징후가 포착된다.

곳곳서 나타나는 밀리언셀러 징후

“석달 전부터 중·고등학생들의 전자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어 성적이 시원치 않았는데, 제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듣기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중학생의 편지도 있지요.”

정찬용씨(43, 에버랜드 환경사업부 디자인센터 소장)는 이런 현상을 독자층이 계속 늘고 있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지난해까지 이 책의 주된 독자는 직장인과 대학생이었다. 이마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확산됐다. 출간 초기 광고를 안 한 것은 물론이고, 신문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 책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서너 차례 방송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냐고 자주 물었습니다. 번번이 대답하기가 귀찮아서 노허우 정리판을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이 책의 도대가 된 10쪽짜

리 프린트물을 제작·배포한 것은 1996년 하반기의 일이다. 명석을 깔아줬지만, 회사내 영어 열기는 곧 사그라들었다. 그러다가 IMF를 계기로 영어 붐이 다시 일었다. 이번에는 아예 정식출판을 하기로 했다. 허나, 곧 난관에 부딪혔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친구부터 책 출간을 말렸다. 영어를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 사회평론의 윤진호 대표로부터 손익분기점이 5천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정찬용씨는 책이 안 팔릴 경우를 대비해 나름의 방책도 세웠다. 본인이 책을 사서 주위 친지와 동료에게 나눠주고는 “이 책 내가 쓴 거야, 읽어 봐”라고 ‘호기’를 부러볼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고정관념 타파가 선결과제

이 책은 영어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정찬용씨는 ‘영어를 공부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한다. 외국어는 공부를 통해 결코 습득할 수 없고, 체화(體化)해야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에게 영어는 무엇보다 하나의 언어다. 이 전제를 수긍하면, 정씨가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보인다.

영어 익히기의 다섯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요령을 일러주고 있지만, 골자는 더 간단하다. 귀를 ‘뚫는’ 일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 역시 단출하다. 카세트테이프 단 한

개면 족하다. 물론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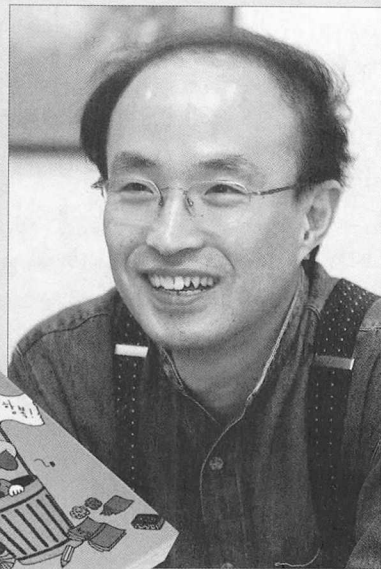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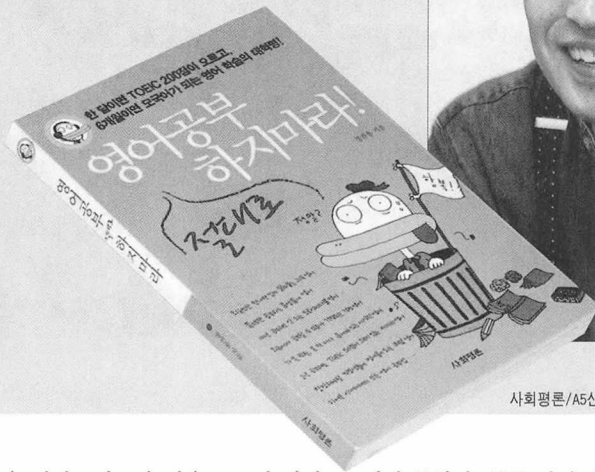
그러나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테이프에 담긴 소리가 다 들릴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까닭이다. 뜻은 몰라도 된다. 이 단계에서 사전을 뒤적이는 것은 금물. 나중에도 ‘영한사전’은 곤란하다.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정찬용식’ 영어 익히기의 또 다른 비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비춰볼 때 쉬운 학습법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사람들이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영어에 대한 자기비하가 심합니다.”

정찬용씨는 영어로 된 정보의 수준이 높고,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영어를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푸딩의 맛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푸딩을 먹어봐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영어 공용화는 찬성하지 않는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공용화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단견입니다.”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영어 캠페인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수긍하는 편이다. 다만, 불분명한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다. 일례로 영어의 달인들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한다는 점을 꼬집는다. 그러면서 정찬용씨는 우리가 한국말을 매일 공부하냐고 반문한다. — 최성일 기자



정찬용씨

사회평론/A5신/208면/5800원